

## 이스라엘과 터키, 그 정세

저희의 동역자이자 사도가 이스라엘-터키의 관계에 대한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1492년 스페인의 종교 재판 당시,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오토만(터키) 제국에 포용됐고, 오토만 제국은 이후 400년간, 1910년에 주권을 잃기까지(1차 세계 대전 발발 직후) 스파르디 유대인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1992년, 이스라엘과 터키는 (전세계의 유대인들과 더불어) 500년간의 우호 관계를 기념했습니다.

최근 우리는 이스라엘과 터키 간 관계에 중대한 전환이 생기고 있음을 봅니다. 역사적 동맹이자 벗인 이 둘의 관계가 1년 전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발단은 ‘캐스트 레드<sup>1</sup>’ 작전 때였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 도시들로 근 8년간 있었던 공격에 이스라엘이 대응한 것이었지요. 그 때 터키 총리는 대놓고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했고, 2009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항의의 제스처를 터뜨려 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터키에서 연이어 나타난 사건들은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암시해줬습니다. 공영 방송의 연속극에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에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의 유아, 아동,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과 살인 등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렇게 불붙은 국민 감정 탓에, 일부 터키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를 표하며 가두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상황이 안정은 됐지만, 이미 상처는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선호 관광지였던 터키로의 여행을 중단했고, 한 때 친근한 이웃으로 대했던 터키를 이제 엄청난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가을, 터키는 이스라엘과의 합동 군사 작전을 취소했고 터키 총리의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은 점점 더 표면화됐습니다. 이에 더해, 터키의 지도자들이 이란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데니자드 등과의 모임을 주최한 것으로 이스라엘은 점점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회<sup>2</sup> 의원 푸아드 벤 엘리에제르<sup>3</sup>가 화해의 손짓을 하며 터키를 방문한 것이 도움이 된 듯했는데,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 후에 일어날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싸이드 하리리<sup>4</sup> 레바논 총리와 회담을 가진 터키 총리 타이이프 에르도안<sup>5</sup>은 ‘이스라엘이 세계 평화에 위협이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미 도를 넘어선 긴장 상태에 더욱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sup>6</sup> 요원 및 외교관들이 무고한 터키 국민들을

---

<sup>1</sup> Cast Lead

<sup>2</sup> Knesset

<sup>3</sup> Fuad Ben Eliezer

<sup>4</sup> Said Hariri

<sup>5</sup> Tayyip Erdogan

<sup>6</sup> 이스라엘 첩보 및 특별 작전 기관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해 아이들이 살해되는 내용을 담은 TV 연속극의 방영으로 국민 감정은 더욱 불길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터키 대사관은 외무부 차관 다니 아얄론<sup>7</sup>과의 면담을 위해 소환됐습니다. 지난 주의 면담 결과는 양국 신문 머리 기사를 장식한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얄론이 터키 대사를 더 낮은 자리에 앉히고, 둘 사이의 테이블에 이스라엘 국기만 설치하며 그와의 악수를 거부함으로써 언론 앞에서 그를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히브리어로 어쩌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관계 위기의 중심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서게 됐고, 터키 총리는 이스라엘 측에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아얄론 차관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터키는 대사를 송환시킬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일반적 사과의 말과 함께 해명이 있었지만, 결국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나서 터키 지도층을 달래야 했습니다.

금주 이스라엘의 국방 장관 에후드 바라키 터키를 방문하여, 터키 지도자들이 마침내 ‘이 사람은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함으로써 관계는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끌어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바라키 캐스트 레드 작전을 지휘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저희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는 영적 변화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지역의 메시아의 몸과 주님의 역사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터키의 국가적 방향이 변했음은 분명합니다. 한때 유럽, 그리고 EU와의 통합을 꾀했던 터키가 이제는 이슬람 동맹국들, 특별히 이란 및 시리아 등 극단주의 정권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터키의 유대 민족,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영적 운명에 대한 태도도 역시 바뀌고 있습니다. 터키의 이슬람 지향적 정부가 터키의 영적 변화로 말미암은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이슬람은 요동치고 있으며, 스스로도 자신들의 종교적 뿌리에 따라 재정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터키는 종교와 세속 간에 더 큰 분열을 보이고 있으며, 현 정권의 정책에 반대를 외치는 소리도 많이 나타납니다. 터키의 어떤 이들이 말했듯, 이렇게 이슬람에 의존하고 있는 정부가 결국은 국민들로 하여금 영적인 삶과 목적에 대한 대안을 찾도록 돕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터키의 엄청난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사역하는 이들의 사정은 실상 우리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

2번 채널(이스라엘 TV 방송국)에서 1월 25일 월요일에 녹화해 간 아셰르의 인터뷰와 곧 잡힐 방송일자를 위해 아셰르를 주님께 올려 주십시오. 저희와 한 마음으로 이 전례 없는 기회가 믿는 유대인들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어 주십시오.

---

<sup>7</sup> Danny Ayalon

저희는 이상할 정도의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메일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들어오지 않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다운 되기도 했고, 핸드폰 통화가 무작정 끊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스카이프<sup>8</sup>도 작동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믿기로는, 이것은 단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사항들이 영구적으로 해결되고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시온에서부터 뿔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기쁨으로 전합니다. 지난 주말, 10만 이상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야외로 나가 푸르러진 경치를 즐겼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전히 평년 수심보다 한참 낮고, 훨씬 많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계속 비가 오도록, 특별히 땅에 흡수되는 보슬비가 내려 부식이나 지난 주와 같은 홍수가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sup>8</sup> Skype